

## 니-취 復興의 現代的 意義 (五)

安浩相

### 二, 價値觀

니-취는 在來에 내려온 여러 哲學系에 얽매이지 안코 自己 獨特의 價値體系를 創作하였다. 價値는 外界事物에 附着한 것도 아니며 內的 狀態에 附着한 것도 아닐뿐더러, 一定한 行爲에 內在한 것도 아닌 一便 法則과 原理에 內在한 것도 아닌 同時에 何時든지 우리가 彼 事物과 狀態와 行爲와 또는 法則에 附與하는 것이며, 如斯히 附與함은 우리가 그들을 「하고저 하며」(wollen) 그들을 「意志의 目標」(Willenszweck)로서 追求하려 함이다. 우리는 저들을 有價値的으로 手工하여 저들에게 價値의 印章을 影印하는 까닭이다. 그럼으로 人間의 意志가 事物의 價値에 向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反對로 事物의 價値가 사람의 意志에 向應하지 안흐면 아니 될 것이다. 各 個人은 서로가 己意志를 所有할 수도 잇을 듯하나, 實狀은 서로 다른 意志를 所有하고 잇슴으로서 그들은 自己 意志의 目標인 價値를 서로 닮은 方法으로 定할 것이 또한 事實이다. 그러함으로 비로소 價値는 個人的 意志 目標로서 必然한 相異性을 가져올 것임을 否定할 수 업다. 이와 가튼 「原價値」(Urwerte)를 自己의 意志目標로서 決定하는 者에게만 妥當할 것이요, 決斷코 如何한 人에게나 普遍妥當의 瞬間을 許與하도록 되어진 것은 아니다.

니-취는 新價値와 眞實한 價値를 混□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根本價値를 普遍妥當의인 것으로서 發見하려는 것이 아니고, 듣이어 根本價値를 個人的으로 定立(指定, Setaen)하려 했스며, 또 이러한 假定 下에서 이 根本價値의 實現手段을 追及하려는 데 꼬티고 말었다. 그는 恒時 價値의 主觀的 要素를 強調하였다. 그의 著書 「개네알오기데쓰모랄[Zur Genealogie der Moral, 『도덕의 계보학』]」에서 그는 말하기를 「如何한 人이든지 深刻하게 覺悟하지 안흐면 안될 것은 우리는 如何한 것이든지 그것을 價値있다고 觀察하는 까닭에 卽 價値있다고 보고저 하는 까닭에 그것이 價値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事物 그 自體가 有價値的 性質을 包含하고 잇다는 것보다 우리 觀察이 그것을 有價値하게 觀察코저함이 重要함이 되지 안홀 수 업스니, 一言而蔽之하면

存在(Sein)보다 意慾(Wollen)이 더 重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價値는 何時든지 意志로서 「定立한 價値」로서 卽 意志의 目的이다. 따라서 이 意志의 目的인 原價値는 自身이 別서 一個 普遍的인 것이 아니라, 오직 個人的으로 「意慾하여진 價値」(Gewellterwert)인 것을 尼저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니-최는 原價値(Urwert)는 最高價値로서 오직 意志로서 定立한 價値일 것이며, 또 이것이라야만 「意志의 目的」이 될 수 있다는 觀點에서 自己의 價値體系를 作成하려 하였다. 卽 이 價値體系는 二大成分을 內包하고 잇스니, 第一에 잇서서 意志로부터 「定立된 目的」(原價値)과 또 이 目的으로부터 悟性이 由來(派生)시킨 手段(低級價値)이다. 萬一 意志가 原價値 或은 高級價値를 目的으로 定立하지 아니할 때는 悟性이 이 目的을 實現할 手段인 低級價値를 由來시킬 수 업다. 그럼으로 니-최의 價値體系에서 非論理的 目的인 原價値와 또 論理的으로 立證하여야지는 手段 卽 低級價値를 區別하지 안코는 니-최의 價値思想을 正當히 理解할 수 업을 것이다.